

승리!! 2007년 단체교섭



오직 주주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측!
곳간에 주주들에게 줄 쌀을 그득히 쌓아두고서
직원들에게 줄 쌀은 한톨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측
올해는 반드시 쟁취하자!!

코스피 당기순이익 상위 20개사 (단위: 억원, %)

회사명	당기순이익		
	2005년	2006년	증감률
삼성전자	70,402	79,261	3.74
포스코	30,046	32,056	-19.73
국민은행	22,522	24,721	9.76
한국전력공사	24,486	20,705	-15.44
하이닉스반도체	18,174	20,124	10.73
현대자동차	23,487	15,261	-35.03
SK텔레콤	18,714	14,456	22.70
SK	16,865	13,940	-17.34
케이티	10,318	12,324	19.54
LG카드	13,631	11,937	-12.43

거짓1. 회사 상황이 어렵다?

한해에 1조 2천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존재할까요?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중 순이익 상위 20개사를 보면 KT가 9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KT가 어려우면 나머지 회사는 굶어죽을 지경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렵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매년 어렵다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더니 실상은 곳간의 쌀을 주주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거짓2. 인건비가 많다?

경영진은 매년 인건비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KT의 인건비로 인해 구조조정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동안 KT의 임금인상이 얼마나 저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98년 6만명이 넘는 KT인원이 지금은 3만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임금인상율을 보면 민영화 이후 2~3%대에 머물러 있었고 2006년에는 동결까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타 업체의 임금인상율은 매년 5%가 넘게 이뤄졌습니다. 노동강도는 2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타업종 대비 임금인상율은 반토막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은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임금인상율 (출처: 노동부)

임금총액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5인이상)	9.2	6	6.6	5.7
광업 및 제조업	8.7	9.4	8	5.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9.5	3.6	5.7	5.7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8.8	4	10.4	4.6
운수업, 창고 및 통신업	10.3	2	7.6	2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8.9	3.5	4.5	6.7
교육, 보건, 사회복지, 개인서비스업	8.6	4.3	4.1	5.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6	4.0	5.0
물가인상률	2.3	4.1	2.7	3.6	3.6	2.7	3.0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10.8	7.9	9.7	6.7	8.2	6.6	8.0
임금인상률	8.0	5.1	11.2	9.2	6.0	6.6	5.7
KT임금인상률	5.5	동결	3.5	2.0 + 주식22주 (일회성)	2.0 + 50만원 (일회성)	3.0 + 성과급100% + 주식60주 (일회성)	동결

지재식위원장, 임단협에 강한 의지 표명 “조합원에게만 고통 전가하면서 주주들에게 퍼주는 사측의 행태 더 이상 용납 못해”

지재식 위원장은 9월 20일 열린 제1차 본교섭자리에서 남중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난해 노동조합이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 임금동결의 결단을 내렸는데 회사는 매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조합원들에게 어려움을 떠넘기고 막대한 이익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사측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비판했다.

이는 단지 지재식위원장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전 간부와 3만 조합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만큼은 적어도 경제성장율과 물가인상율이 반영된 실질임금을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함께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

그나마 있는 복지제도도 없애려고 한다

지난 20일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복지제도조차 없애려고 안달을 하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출연 못하겠다”

제90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에 따라 세전당기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아니면 이행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아예 이조항을 삭제해 노동조합이 요구할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자금, 대학생자녀 장학금, 유치원 교육보조비 등등 수많은 자금이 복지기금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데 이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원주택을 없애겠다”

현행 단체협약 제92조(사원주택 확보) ②항의 “사원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의 노후된 사택을 현대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사합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사원주택을 없애려는 의도입니다.

“병가를 무급화 하겠다”

현행 단체협약 63조(휴가) 항목중 병가를 입원병가와 일반병가로 구분하고 일반병가를 무급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환자에게 생계 걱정까지 시키겠다니 이게 할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직원을 소중히 생각하는 회사라면 하루 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